

# KT 노동조합

현 장 과 함 께 하 는 노 동 조 합 건 설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 10 03rd

2009년 4월 2일(목)

### 포커스

## 임시 주주총회 통해 KT-KTF 합병 승인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다” 못박아

KT는 3월 27일(금) 오전 10시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KTF와의 합병을 승인했다. 한편 같은 시간 KTF도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KT-KTF 합병이 초읽기 들어갔다. KT와 KTF는 4월 1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기간을 거쳐 6월 1일 합병을 최종 완료한다.

이석재 사장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1조 7천억원 보다 훨씬 낮아 합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이번 합병을 통해 통합 KT가 한국 IT산업의 리더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부 주주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은 철저히 진행할 것이며, 이 같은 방침에 낙오하는 조합원이 한 명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장은 KTF와의 합병에 따른 목적사항 변경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발전업 추가와 관련해 “이 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를 따로 만들 계획은 없으며 현 인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 새 지도부 구성

임성규 위원장 “노동절 행사에 집중”



민주노총 신입 위원장에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이 당선됐다.

민주노총은 4월 1일(수) 오후 2시 서울 등촌동 서울88체육관에서 열린 제4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임원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위원장 선거는 임성규 비대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대의원 총 98명 가운데 54.9%인 533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임 비대위원장은 84.4%의 찬성표를 얻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도록 한 규약과는 달리 모두 6명으로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다. >>>3면에 계속

### IT연맹

## 통일위원회 개최

3월 12일(목) 오전 IT연맹 사무실에서 2009년 1차 통일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가맹조직 통일담당자 11명이 참가했으며, △4.3 제주민중항쟁 61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3-6월 민주노총 자주통일사업계획 세부안 △북한 어린이 교육용 PC 모니터 보내기 사업 등이 논의됐다.

연초 IT연맹 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KT노동조합 장인태 조직처장은 “연맹 통일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분단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통일사업으로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 2009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성황리에 마쳐

## 대의원 · 조합간부 등 5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 심의 · 의결 및 고용안정 쟁취 결의



노동조합은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3월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지리산수련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국대의원 280명을 포함한 조합간부, IT연맹 박홍식 위원장과 이석재 사장 등 관계내외인 총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건설”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힘찬 결의의 장이 되었다.

김구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 정세는 우리에게 위기를 딛고 일어설 새로운 지혜와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자”고 호소했다. 또한 “대의원동지들의 어깨 위에 3만 조합원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 있다”며 “이번 대의원대회를 고용안정을 위한 결의의 장, 조합혁신을 위한 다짐의 장, 09투쟁 승리를 위한 단결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의결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순에 따라 먼저 2008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에 관한 건과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건이 대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대의원들은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신뢰받는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2009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어 전국대의원 선출방식 변경을 담은 규약개정안이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선출인원은 지방본부 조합원이 150인 이상일 경우에는 150인 단위로 1인씩 선출하고, 단수 101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을 추가 선출한다.

### “대의원 의지 모아 고용안정 꼭 지키겠다”

중앙본부 실·처장과 회계감사,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건이 차례로 통과

### 2009년 사업계획 등 6개 안건 모두 처리

이번 전국 대의원대회에서는 6개의 안건을 심의 ·

했다. 중앙본부 임원진으로는 사무처장 윤요원, 정책기획실장 차안규, 조직처장 장인태, 교육선전실장 허진 등이 선출됐다.

본 대회 마지막 순서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고용안정 쟁취 ▲현장활동 강화 ▲신뢰받는 노동조합 건설 ▲노동탄압 분쇄 등을 결의하고 폐회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를 마치며 “대의원들이 10대 집행부에 큰 힘과 의지를 실어준 만큼 앞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현장속에서 신뢰받는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 김구현 위원장, 대의원들과 간담회 진행

한편 23일 저녁에는 김구현 위원장과 대의원들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의원 일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민주노총 탈퇴 문제 등을 거론했으나 김구현 위원장은 “신중히 검토하되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민주노총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점과 특히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전제해 뒤 “그러나 민주노총을 탈퇴했을 때 KT노동조합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노동환경이 취약해 지는 상황에서 연대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이석재 사장과 만나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회사와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지만, 만약 노사신뢰를 훼손한 다거나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부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강조했다”며 “나는 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소신을 바탕으로 노사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 사장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수 차례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문화해

“한가락”의 공연이 펼쳐져 대의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대의원대회 공연을 위해 며칠 전부터 손발을 맞춰가며 맹연습을 해왔으며, ‘불나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총 9곡의 노래를 불렀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지부 14개와 우수조합원 17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2면에 계속

### ■ 우수지부 (총 14개 지부) ■

- ▲강북지방본부 기적지부(지부장 김용만), 중앙지부(지부장 임광호) ▲강남지방본부 강남망NSC지부(지부장 이종철) ▲서부지방본부 경기서부NSC지부(지부장 최남권) ▲부산지방본부 동마산지부(지부장 정봉순), 남울산지부(지부장 임태복) ▲대구지방본부 남대구지부(지부장 전대현) ▲본시지방본부 자산개발센터지부(지부장 유재영) ▲전남지방본부 완도분회(분회장 김광주) ▲전북지방본부 전주지부(지부장 윤기성) ▲충남지방본부 용전지부(지부장 유중선) ▲충북지방본부 남청주지부(지부장 박상순) ▲강원지방본부 태백분회(분회장 이춘근) ▲제주지방본부 제주NSC지부(지부장 강성숙)

### ■ 우수조합원 (총 17명) ■

- ▲박준용 강북지방본부 경기북부NSC지부 ▲이준근 강남지방본부 송파지부 ▲백봉현 서부지방본부 향동분회 ▲김호경 부산지방본부 부산마케팅팀 사업지원센터지부 ▲박추서 대구지방본부 대구NSC지부 ▲박세호 대구지방본부 대구마케팅팀 사업지원센터지부 ▲이도식 본시지방본부 기업고객센터지부 ▲조광래 본시지방본부 물류센터지부 ▲이미애 본시지방본부 기업고객센터지부 ▲주정인 전남지방본부 진도분회 ▲김애정 전남지방본부 광주NSC지부 ▲박창규 전북지방본부 전북서부NSC지부 ▲윤은중 충남지방본부 금산지부 ▲강철수 충남지방본부 동대전지부 ▲김준문 충북지방본부 충북마케팅팀 사업지원센터지부 ▲안승호 강원지방본부 원주지부 ▲정재익 제주지방본부 제주마케팅팀지부

### 2009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대회사

## “KT-KTF 합병 통해 재도약... 고용안정 · 복지증진 위해 최선”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IT연맹 박홍식 위원장님과 가맹산하조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합병을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석재 사장님께도 3만 조합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 KT 재도약을 위한 큰 산을 넘어왔습니다. 지난 18일 KTF와의 합병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2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통합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이번 합병은 한국 통신시장을 개척해온 KT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변이며 이제 KT는 유무선 컨버전스 시대를 선도하는 새 역사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KT 3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그동안 합병을 위해 노력해오신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동지 여러분! 2009년 우리는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엄혹한 정세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비극이 세계대공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다 망해가는 미국식 금융정책과 1% 재벌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중산층은 몰락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정세는 우리 노동자에게 위기를 딛고 일어설 새로운 지혜와 결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은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바쳐야겠습니다. 고용안정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의 KT를 구하는 길에 노와 사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KT 재도약과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재 사장님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대의원 동지들을 비롯한 3만 조합원들도 어려움을 감내하며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재 사장께서 취임 후 누차 강조하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

다는 말씀을 노동조합은 신뢰하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위한 일에는 성심을 다해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두는 바입니다.

KTF와의 합병에 따른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2010년 복수노조 및 전일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따른 대, 내외 노동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합병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조합간부들의 슬기와 지혜, 조직적 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노동조합의 맨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현장지휘관과 같은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의 활동 여여에 10대 집행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지들이 일선에서 지부조직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과 현장을 잇는 교량자가 되어 상호조직이 한 몸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실현하는 길에 대의원 동지들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위기에 희망을 만드는 10대 집행부의 첫 대의원대회입니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들의 지혜와 결집과 의지를 모아 주십시오. 우리의 어깨 위에 3만 조합원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대의원대회를 고용안정을 위한 결의의 장, 조합 혁신을 위한 다짐의 장, 09투쟁 승리를 위한 단결의 장으로 만들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대회사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24일 KT노동조합 위원장 김구현

## 2009년 춘계 체육행사 시행

2009년도 봄을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행사기간 : 2009. 04.17(금) ~ 04. 30(목) [토 · 일요일 시행금지]
-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및 계약직(직건계약직 포함)
- 예산집행 : 1인당 2만원 준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행사내용 : 각 지부 실정에 맞게 적의 시행
  - 체육대회, 등산대회, 소풍, 건강달리기대회, 공연관람 등
  -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 및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
  - 체육에 관한 전시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

※ KT-KTF 통합에 따른 일체감 조성을 위해 기관별 공동실시 가능





# 사진으로 본 2009 전국대의원대회

노동조합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3월 23일(월)~24일(화) 6개의 심의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대의원들과 조합간부, 그리고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총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 1. 2008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 2009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 3.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6. 삼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재적대의원 280명 중 참석한 277명의 대의원들은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한 후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 1 2009 전국대의원 입소

△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500여 명의 대의원들과 조합간부들은 23일(월) 오후 지리산수련관에 입소해 숙소를 배정받은 뒤 오후 3시부터 입소식에 참가했다. 대의원들과 조합간부들의 표정은 밝고 활기차며 오랫동안 만난 탓인지 삼삼오오 모여 환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분위기였다.

## 2 전국대의원대회 입소식

△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입소식 인사말을 통해 "불기운이 만연한 지리산 자락에 전국 대의원들과 조합간부들을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다"며 "전국 대의원들과 조합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를 조직강화의 장, 고용안정의 장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 3 전국대의원 교육

△ 입소식이 끝난 후 4시부터는 '통일 노동환경 변화와 대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비전노동센터 조자영 소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조자영 소장은 ▲경제위기와 통일노동환경의 현황 ▲복수노조와 민주노조운동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의원의 역할 등의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 4 김구현 위원장과의 대화

△ 2009년 3월 23일 저녁 식사후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김구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용안정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 5 문화행사

△ 본대회 시작에 앞서 조합원들로 구성된 문화대(가칭 '한기락')의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김배정 대외협력·정책국장을 비롯한 이들은 이번 전국대의원대회 공연을 위해 며칠 전부터 손발을 맞춰가며 연습을 해왔으며, '불나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총 9곡의 노래를 불렀다. 문화대 '한기락': 중앙본부 대외협력·정책국장 김배정(베이스·기타), 강남지부 기락지부 영덕선(베이스·기타), 강남지부 기락지부 최일호(드럼), 강남지부 기락지부 이인영(기타), 강남지부 사업지원센터 지부 최영숙(건반), 강북지부 사업지원센터 지부 구연옥(보컬 어), 본사지부 기술지원본부 지부 선성규(보컬 남)

## 6 힘찬 결의로 진행된 본대회

△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본대회가 24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본대회에는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대의원들과 조합간부, 그리고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총 5000여 명이 함께 했다. 참가한 내외빈은 IT연맹 박희식 위원장과 기행산하조직 위원장, KT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이석재 사장과 임원진 등이다.

## 7 본회의에서 6개 안건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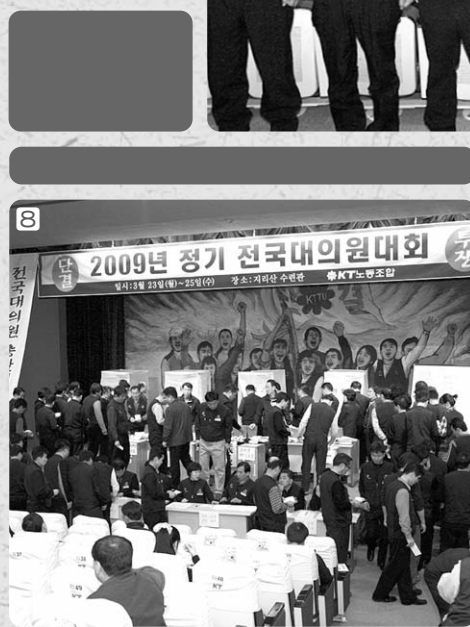
△ 본회의에서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1호 안건과 2호 안건이 순서대로 상정돼 대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3호 안건 '규약개정에 관한 건'과 4호 안건 '임원 선출에 관한 건' 그리고 5호 안건 가운데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건'은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일괄투표 후 일괄투표에 부처졌다. 나머지 5호 안건 '중앙집행위원 선출에 관한 건'과 6호 안건 'IT연맹 파견대의원 선출 건'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건'은 거수투표로 처리하는 의견이 제출됐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8 투표 및 투표결과

△ 투표 결과 3호 안건 '규약 개정에 관한 건'은 재적대의원 27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8표, 반대 89표, 찬성을 67.8%로 참석대의원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전국대의원은 지방본부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임원선출에서는 △사무처장 윤오원 △정책기획실장 차원규 △조직처장 정인태 △교육선진실장 허진 등이 선출됐고, 이 외에도 회계감사, 중앙위원 등도 전원 선출됐다. 중앙집행위원과 삼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9 결의문 채택

△ 2009년 전국대의원대회는 결의문채택을 끝으로 24일(화) 오후 5시경 폐회했다. 내용은 ▲3만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기치로 조합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현장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 ▲조합활동의 구태와 관성을 탈피하고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받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정부와 사측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하나의 뜻과 의지로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 등이다.



## 2009 전국대의원대회 선출 및 투표 결과

### 중앙본부 실·처장 선출의 건

■ 선출 결과  
- 사무처장: 윤오원 - 정책기획실장: 차원규  
- 조직처장: 정인태 - 교육선진실장: 허진

■ 투표 결과  
- 재적대의원 277명 - 투표수 277명  
- 찬성 263 - 반대 13 - 무효 1

### 회계감사 선출의 건

■ 선출 결과  
1) 강남지방본부 발안지부 유기수  
2) 서부지방본부 안산지부 임준인  
3) 부산지방본부 울산지부 김인제  
4) 대구지방본부 안동지부 김시동  
5) 본사지방본부 기업고객센터지부 김재희  
6) 충남지방본부 아산지부 권환원  
7) 전북지방본부 정읍지부 이광욱

■ 투표 결과  
- 재적대의원 277명 - 투표수 277명  
- 찬성 262 - 반대 5 - 무효 0

### 중앙위원 선출의 건

■ 선출 결과  
1) 강북지방본부 월곡지부장 문순홍  
2) 강북지방본부 행당지부장 김종열  
3) 강북지방본부 여의도지부장 정윤길  
4) 강북지방본부 파주분회지부 이진구  
5) 강북지방본부 포천지부장 정성길  
6) 강남지방본부 강남지방위원장 이현광

7) 강남지방본부 조직국장 이선규  
8) 강남지방본부 강동NSC지부장 이봉규  
9) 강남지방본부 수지분회지부 남대경  
10) 강남지방본부 강동지부지부 장연호  
11) 서부지방본부 중앙본부 정책기획실장 차원규  
12) 서부지방본부 인천NSC지부장 김영주  
13) 서부지방본부 세종지부지부 김동영  
14) 서부지방본부 송의지부 이현오  
15) 부산지방본부 부산지방위원장 정순모  
16) 부산지방본부 중앙본부 조직2국장 최신철  
17) 부산지방본부 사무국장 황성관  
18) 부산지방본부 조직국장 이호우  
19) 부산지방본부 동부산NSC지부장 권상기  
20) 대구지방본부 대구지방위원장 김근주  
21) 대구지방본부 중앙본부 수석부위원장 김해관  
22) 대구지방본부 중앙본부 복지국장 한호선  
23) 대구지방본부 조직국장 이영태  
24) 본사지방본부 본사지방위원장 김 신  
25) 본사지방본부 사무국장 이원배  
26) 본사지방본부 조직국장 노일철  
27) 본사지방본부 중앙위원장 김구현  
28) 본사지방본부 중앙본부 사무처장 윤오원  
29) 본사지방본부 중앙본부 정책3국장 홍정성  
30) 전남지방본부 광주지부장 안한선  
31) 전남지방본부 동순분회지부 신봉수  
32) 전남지방본부 강진분회지부 임광택  
33) 전북지방본부 전북지방위원장 양정우  
34) 전북지방본부 중앙본부 조직처장 장인태  
35) 충남지방본부 충남지방위원장 고홍관  
36) 충남지방본부 조직국장 서윤수  
37) 충남지방본부 대의원 최장복  
38) 충북지방본부 조직국장 김우정

39) 강원지방본부 강원지방위원장 심우승  
40) 강원지방본부 중앙본부 정책1국장 전형집  
41) 제주지방본부 제주지방위원장 고홍관

■ 투표 결과  
- 재적대의원 277명 - 투표수 277명  
- 찬성 261 - 반대 11 - 무효 5

### 중앙집행위원 선출의 건

■ 선출 결과  
1) 본사지방본부 위원장 김구현 김해관  
2) 대구지방본부 수석부위원장 김민준  
3) 본사지방본부 사무처장 윤오원  
4) 서부지방본부 정책기획실장 차원규  
5) 전북지방본부 조직처장 김인제  
6) 충남지방본부 교육선진실장 허진  
7) 회계감사위원 (회계위원 중 추후 호선) 김태호  
8) 강북지방본부 강북위원장 김태호  
9) 강남지방본부 강남위원장 이현광  
10) 서부지방본부 서부위원장 문경노  
11) 정읍유 부산위원장 김 신  
12) 부산지방본부 부산위원장 정지국  
13) 대구지방본부 대구위원장 김근주  
14) 충남지방본부 충남위원장 조중우  
15) 충북지방본부 충북위원장 정지국  
16) 전남지방본부 전남위원장 임종대  
17) 전북지방본부 전북위원장 양정우  
18) 강원지방본부 강원위원장 심우승  
19) 제주지방본부 제주위원장 고홍관  
20) 강북지방본부 지부장 이윤근  
21) 강남지방본부 지부장 김성택  
22) 서부지방본부 조직국장 김영근

23) 부산지방본부 조직2국장 최신철  
24) 대구지방본부 사무국장 여성동  
25) 본사지방본부 조직국장 노일철  
26) 전남지방본부 조합원 김원택  
27) 전북지방본부 조직국장 신환근  
28) 충남지방본부 사무국장 박중우  
29) 충북지방본부 지부장 박상준  
30) 강원지방본부 조직국장 엄도열  
31) 제주지방본부 조직국장 조순호

■ 투표 결과  
-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 IT연맹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 선출 결과  
1) 김구현 위원장 남 2) 김해관 수석부위원장 남  
3) 윤오원 사무처장 남 4) 차원규 정책기획실장 남  
5) 정인태 조직처장 남 6) 허진 교육선진실장 남  
7) 김태호 강북위원장 남 8) 이현광 강남위원장 남  
9) 문경노 서부위원장 남 10) 김 신 본사위원장 남  
11) 정순모 부산위원장 남 12) 김근주 대구위원장 남  
13) 임종대 전남위원장 남 14) 양정우 전북위원장 남  
15) 조중우 충남위원장 남 16) 정지국 충북위원장 남  
17) 심우승 강원위원장 남 18) 고홍관 제주위원장 남  
19) 박경윤 재정국장 남 20) 전형집 정책1국장 남  
21) 김인식 조직1국장 남 22) 한호선 복지국장 남  
23) 최신철 조직2국장 남 24) 김동욱 정책2국장 남  
25) 김용규 조직3국장 남 26) 김배정 대외협력국장 남  
27) 김근배 교육국장 남 28) 홍정성 정책3국장 남  
29) 김민수 편집국장 남 30) 김시희 강북조직국장 남  
31) 김명근 서부조직국장 남 32) 이선규 강남조직국장 남  
33) 노일철 본사조직국장 남 34) 김영성 연맹 사무처장 남

35) 윤일성 연맹 교신실장 남 36) 각각속 중앙여성국장 여  
37) 이효순 강북여성국장 여 38) 양선희 서부여성국장 여  
39) 불미애 국제지부장 여 40) 이희선 강남복지국장 여

■ 투표 결과  
-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 선출 결과  
1) 김구현 위원장 남 2) 김해관 수석부위원장 남  
3) 차원규 정책기획실장 남 4) 정인태 조직처장 남  
5) 허진 교육선진실장 남 6) 김태호 강북위원장 남  
7) 이현광 강남위원장 남 8) 문경노 서부위원장 남  
9) 정순모 부산위원장 남 10) 김근주 대구위원장 남  
11) 김 신 본사위원장 남 12) 임종대 전남위원장 남  
13) 양정우 전북위원장 남 14) 조중우 충남위원장 남  
15) 정지국 충북위원장 남 16) 심우승 강원위원장 남  
17) 고홍관 제주위원장 남 18) 김인식 조직1국장 남  
19) 전형집 정책1국장 남 20) 김근배 교육국장 남  
21) 각각속 중앙여성국장 여 22) 한호선 복지국장 남  
23) 최신철 조직2국장 남 24) 김동욱 정책2국장 남  
25) 김용규 조직3국장 남 26) 김배정 대외협력국장 남  
27) 김배정 대외협력국장 남 28) 김시희 강북조직국장 남  
29) 이선규 강남조직국장 남 30) 김명근 서부조직국장 남  
31) 노일철 본사조직국장 남 32) 이효순 강북여성국장 여  
33) 이희선 강남복지국장 여 34) 양선희 서부여성국장 여  
35) 불미애 국제지부장 여 36) 허은경 중앙여성국장 여  
37) 한미라 충북여성국장 여 38) 박영희 강원여성국장 여  
39) 최윤수 본사여성국장 여

■ 투표 결과  
-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 민주노총 위원장에 임성규 후보 당선

## 새 지도부, 조직쇄신과 결집으로 노동절 준비에 매진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4월 1일(수) 오후 2시 등촌동 서울88체육관에서 열린 제4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임원보궐선거를 실시했다.

단독 출마한 임성규 비상대책위원장(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신승철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후보는 이날 유권자 98명 중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533명으로부터 찬성 450표, 반대 52표, 무효 31표를 얻어 8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부위원장으로는 정의현 부산일반노조 지도위원, 반명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청부패추방운동 본부장, 김경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배강욱 전국화학산업노조 지도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올해 초 지도부 총사퇴 이후 3개월 만에 꾸려진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남은 임기인 9개월간 민주노총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 임성규 위원장 “총단결로 위기극복”

임성규 위원장 당선자는 “현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840만 비정규노동자와 16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하며 “오늘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조합원들이

총단결해 5월 1일 노동절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행력 제고를 위한 본부기구 통폐합 ▲본부 예산과 인력 개편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와의 협력 강화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석행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조직 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총사퇴한 뒤 5기 지도부는 공식으로 비어있는 상태였다.

#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대회 열려

## 여성간부, 민주노총 집회 후 IT연맹 여성간부 역량강화 수련회 참가



노동조합 여성간부 및 대의원들은 IT연맹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3월 8일(일)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 날 101주년 기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여성노동자에게 전가 말라!’는 주제로 정·재계에 여성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840만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서 여성노동자들은 인력감축 1순위로 지목돼 희생을 요구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집회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총 50여 명의 여성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IT연맹 과감속 여성위원장(KT노동조합 중앙본부 여성국장)은 대회를 통해 “101년 전 투쟁의 외침이 아직도 귓전을 울리는 것은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위로하며, “경제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가장 먼저 고용불안을 느끼는 우리 여성들이지만,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권리를 지켜내자”고 독려했다.

IT연맹 여성간부들은 집회 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간부 역량강화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단시간 간단한 친교프로그램 후 여성노동자 건강교육, 경제위기 시 여성노동권 대응방안, 여성노동간부 리더십 강화교육, 여성사전시관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심금 울린 ‘한가락’ 문화패

# 진정한 조합원의 평범한 소리를 담아



김구현 위원장  
가락지부장 최영근

KT노동조합 제10대 김구현 위원장 출범의 원년인 2009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김구현 위원장 가락지부 ‘한가락 문화패’ 공연이 펼쳐졌다.

가락지부 지부장으로서 대의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은 ‘한가락 문화패’ 동지들이 자랑스러웠고, 이는 우리 가락지부의 영광이다.

전국대의원대회를 2주 가량 앞두고 식전행사인 음악공연 요청을 받았을 때, 아직은 동우회 수준인 한가락 문화패가 ‘전국에서 모인 동지들 앞에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과 노동조합을 위한 단결, 투쟁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과 공휴일에 짬을 내어 지하 보일

러실 한 전에서 맹 연습을 했다. 대의원대회 하루 전날 대강당에서 최종 리허설을 하면서 연주자와 악기가 하나되어 멋진 음악이 흘러 나왔을 때, 그 동안 축박한 일에서 근무와 연습을 병행하면서 땀 흘린 동지들의 지력을 느낄 수 있어 가슴이 벅찼다.

그 동안 중앙본부에서 주최한 대부분의 행사는 외부 노래패나 공연 팀을 초청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완벽했지만, 우리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가락 문화패는 그에 비하면 부족함은 많았으나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모습만큼은 남부럽지 않았다. 또한 전국대의원 동지들이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시고 함께 노래하고 박수와 환호로 채워 주셨기에 더욱 더 아름답고 빛나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었다.

한가락은 약 3년여 전 전전모임의 일환으로 기타와 드럼으로 시작했다. 학창 시절에 했던 솜씨를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게을리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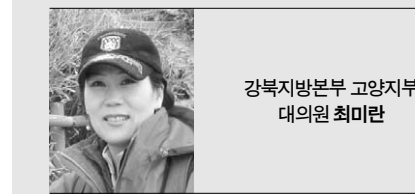
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 동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어왔다. 특히 앞으로 노인장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는 소박한 꿈과 노동조합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 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금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조합원을 위한 길은 어떤 길인가?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는가?’ 등 김구현 위원장의 고뇌와 열정, 진정한 KT 노동조합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 특히, 이번 ‘한가락 문화패’를 위해 김구현 위원장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 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준 김배정 대의협력·쟁의국장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우리 모두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믿음과 단결로 한마음이 되었을 때, KT 노동조합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김구현 호가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KT노동조합 파이팅! 단결! 투쟁!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참여 수기

# 여성간부 역량강화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구현 위원장  
가락지부장 최영근

KT노동조합 여성국장, 여성대의원들이 3월 8일(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세계여성의 날 10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영풍문고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세계여성의 날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나였기에 생소한 분들과 무엇을 하게 될 지 부담 반 호기심 반으로 장소에 나갔다. 청계천 광장에 나가니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중이었다.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모여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여성의 날이 생기기 된 배경과 이 세상 여성들이 약자로서 받게 되는 부당한 사례들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2시간 가량의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대방동 서울 여성프라자로 옮겨 저녁식

사 후 속소를 배정받았다. 이후 IT연맹 박흥식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온 대의원 및 각 지방본부 여성국장들의 인사 나누기가 시작됐다. 본인소개가 아닌 옆에 앉은 짝을 소개하기로 했는데, 잠깐 동안이지만 서로를 많이 파악해서 친숙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어 여성의 권리수호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1박 2일 동안 좀 마네 부대표로 활동중인 로리주희 선생님의 ‘여성의 몸을 사랑합시다’와 나지현 선생님의 ‘경제위기, 그들에게는 무슨일이...’, 정은지 선생님의 ‘나만의 리더십 스타일 찾기’ 등이 진행되었다.

교육이라면 으레 책상에 앉아 조금씩은 꾸벅거리며 보는 모습이 보일 듯도 한데 모두들 눈을 반짝이며 한 명도 졸지 않고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다.

마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던 터라 이번 교육을 통해 각지의 여성대의원과 여성국장들이 미리 친분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낯선 모습이 아닌 인사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감사했다. 짧은 시간, 짧은 만남이었지만 여성 연대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슴으로 느낀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노동조합, 故 윤준상 동지 등 열사 추모제 개최

## 김구현 위원장 “2009년의 열사정신은 고용안정”강조



노동조합은 3월 5일(목) 11시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합동추모제를 열어 선배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추모제에는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본부 위원장과 간부들, 유가족 전 위원장, 박흥식 IT연맹 위원장과 간부들, 그리고 故 윤준상 동지의 가족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함께 했다.

추모관에는 故 김낙성 동지, 故 김원환 동지, 故 오용철 동지, 故 김양중 동지, 그리고 故 윤준상 동지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김구현 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오늘, 먼저 가신 다섯 분의 동지들이 더욱 그리워진다”며 “우리가 계속해야 할 열사정신은 첫째도 둘째도 고용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IT연맹 위원장은 연대 추모사에서 “MB약법으로 노동현장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MB약법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유가족 대표로 답사를 한 故 김낙성 동지의 동생 김낙은씨는 “연제나 먼저 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매년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는 KT노동조합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그분들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모비 뒷편에는 먼저 가신 네분 동지들의 이름 뒤에 최근 별세하신 故 윤준상 동지의 이름이 새겨져 지켜보는 유가족들과 조합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 유족대표 인사말씀

오늘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KT노동조합 위원장님, 간부님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같이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두터운 동지애로 모든 역경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절로 가슴이 뭉클해 지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서로의 시간은 달랐지만 나아가는 뜻이 같았고 KT노동조합과 한 가족으로서 살아온 지금, 이 감회가 더 없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떠나신 ‘남’과 지난날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문득 문득 생각날 때면 지금도 아쉬움과 그리움에 마음 가득 눈물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가족과 헤어진 슬픔, 동지를 잃은 아픔을 서로 나누며 오늘의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KT노동조합 여러분!  
지금의 아픈 마음이 큰 용기로 단련되어서 고난의 역경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KT노동조합이 되어, 여러분께서 하시는 큰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가슴 깊이 기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03.05  
유족대표 김낙은



# 김구현 위원장 전남일대 현장방문

## 완도 · 목포 · 하당지부, 무등산중계소 등 방문해 조합원 격려



김구현 위원장은 3월 9일(월)~10일(화) 전남 일대를 순회하며 현장 조합원들을 만났다. 9일은 전남마케팅단 소속 완도지부를 방문했고, 10일은 전남마케팅단 목포지부와 하당지부, 무등산중계소 등을 찾았다. 김구현 위원장 지방순회는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치에 맞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지난달 제주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방문이다.

# 노동조합, 충북지역서 이동정책실 운영

## 중앙상집, 3월 30~31일 청주 · 충주 등서 현장작업 및 간담회 개최



▲ 청주지부 고객전송팀, 시험실 조합원들과 간담회 모습



▲ 청주지부 영업팀 조합원들과 대화 모습

노동조합은 3월 30일(월)~31일(화) 양일간 충북지방본부에서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이동정책실에 참여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1박 2일 동안 충북지방본부의 청주지부 영업팀과 고객전송팀 등을 시작으로 충주지부, NSC 등을 방문해 현장작업을 돕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이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건

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정책실은 지난 달 강원지방본부 강릉/양양/삼척지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활동이었다. 조합원 고충해결 위해 '이동정책실' 운영 노동조합 '이동정책실'은 중앙본부 정책실을 매달 1~2회씩 지부로 파견해 현장 조합원과 함께 현장업무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다. 이는 10대 집행부에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고충을 체험함으로써 필요시 사측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노동조합 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열려

## 전남지방본부서 현장조직 정비방안 등 논의



노동조합은 3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1박2일 동안 전남지방본부에서 '2009년 제3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개최했다. 김구현 위원장,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실·처장, 전국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한 3월 전제일정 및 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공유했다. 특히 조직개편으로 인해 어수선한 현장조직을 정비하고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중앙상집, 본사지방본부와 출근선전전 실시

## KT-KTF 합병관련 노동조합 입장 담은 성명서 · 노보 배부



3월 4일(수) 아침 07:30부터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본사지방본부 상집간부들과 본사 사옥

에서 출근선전전을 함께 진행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실체없는 유언비어가 2만8천여 조합원의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김구현 위원장님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아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합간부들은 이날 아침 본사 조합원 출근 시간에 맞춰 「조합원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조합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KT-KTF합병인가 관련 노동조합 입장」등이 실린 KT노보 10-2호로 아침 선

전 출근전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망언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현장 조합원을 불안케 하는 유언비어나 망언이 보도될 때에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의지를 믿고 지지해주는 것만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기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강조했다.

# 전국 조직국장 회의 개최

## 대의원대회 일정공유 및 현안사항 논의

노동조합은 3월 4일(수) 오후 4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 조직국장회의를 열고 2009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정을 공유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 시기를 3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 공유했다. 애초 3월 25일(수)~27일(금) 개최안이 논의됐으나 27일 KT-KTF 합병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앞당기게 됐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지방본부별 권역회의의 자율적 운영방침 재확인 ▲3월 5일 선배열사 합동추모제 참여 ▲3·8여성대회 참여 및 수련회 조직 점검 등이 논의됐다. 지부 승격 및 신설지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전체적으로 심의·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맞춰 지부별 기발과 배지 등을 중앙본부에서 일괄 제작해 전국 지부에 나눠주기로 했다. 한편 장인태 조직처장은 "노보 배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조합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곳이 40% 가량이나 됐다"며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노보 및 일일소식지 배포에 조직국장들이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 전국 재정국장 회의 열려

## 연간 예산 편성기준 등 논의

노동조합은 3월 12일(목) 오후 2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12개 지방본부 재정담당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지방본부 재정담당국장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 지방본부별 연간 예산 편성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앙본부 박경윤 재정국장은 이번 회의에 대해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방본부의 2009년 예산을 논의하는 첫 회의"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몇 차례 더 논의를 진행한 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재정국장은 "조합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하며, "각 지방본부 재정담당국장께서는 지방본부별 연간 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중앙 회계감사 시행

## 3월 2~6일, 2008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KT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대표위원 김진욱 외 6인)는 2009년 3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5일간 2008년도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6일 오전 10시에 총평 및 회계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진욱 회계대표위원은 총평에서 "9대 집행부 마지막 회기의 재정관련 행정처리가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회계감사위원회는 환수조치 5건, 시정조치 4건을 지적하고 10대 집행부에서는 조합비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구현 위원장은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간 고생하신 회계감사 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10대 집행부는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투명한 집행부를 위해 조합비가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 긴급출동비 · 휴일수당미지급 시정 등 조합원 고충 해결

## 노동조합, 1차 현장건의사항 조치 결과

KT노동조합 10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현장 애로사항 등 조합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사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긴급출동비 미지급 및 휴일수당 편법지급**  
가. 세부사항: 휴일근무수당을 긴급출동비로 편법 대체 및 일부 지급  
나. 추진사항  
-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  
- 홀20201-59(2009.02.20) '현장 정도경영 준수절차' 문서 시달
-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근절**  
가. 세부사항: 비영업부서 상품판매로 인한 개인할당 및 스트레스 심함  
나. 추진사항  
-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강력대응  
- 현장의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강제 시 즉시 중앙본부로 신고하여 적극적인 대처  
- 홀20201-59(2009.02.20) '현장 정도경영 준수절차' 문서 시달
- 자택대기 문제점**  
가. 세부사항: 자유롭지 못한 생활 및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등 개선 필요  
나. 추진사항  
- SMS(문자메시지) 중지, 향후 개선사항 협의 중
- 외부기관에 의한 전력장제 시 VOC 처리**  
가. 세부사항: 합선 등의 원인에 대한 고장은 50~100% 삭감처리 필요

- 나. 추진사항: 2009년부터 고정사유가 KT사유가 아닌 VOC는 KPI(지표)에 미포함
- 전력요원 작업복 상향조정**  
가. 세부사항: 우의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  
나. 추진사항: 2009년 지급기준에 반영 조치
- 현장 우의가 땀뻘뻘 부드러운 재질로 개선**  
가. 세부사항: 한전의 ZeroTex 제품같은 원단으로 지급  
나. 추진사항  
- 2009년 이미 기능개선부드러운 재질을 했으며, 2009년 새로운 원단으로 개선 추진 중
- 광케이블 정기공급 및 기능 개선사항**  
가. 세부사항: 잦은 변경 · 공급으로 기량 미숙 및 접속 손실과다로 VOC발생  
나. 추진사항  
- 공급기간: 2008.10.01 - 2009.09.30 (1년 계약 단위로 공급)  
- 기능개선  
- 네트워크케이블: 신형제품 개량개선 완료 (공급일정: 02.24 ~ )  
- 고러오트론 광섬유 삽입이 잘 안 되는 문제  
→ 페룰 내경 크기 확대(초기:125.5-125.6, 현재:125.8 - 126.5)

- 모뎀 및 STB 신제품 매 새겨쳐림 처리(케이스 등)**  
가. 세부사항: 신규 고객에게 재활용 제품을 설치한다며 민원 및 VOC발생  
나. 추진사항  
- 고지92601-118(2009.02.17) 문서시달  
- 외관손상 STB 케이스교체 시행 및 불량품 처리협조  
- 외관 손상된 케이스 및 LED IP등록
- 속경로 고정지점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한 작업생산성 반영**  
가. 세부사항: 절연 및 잠을 등으로 열수축관 다수 해체 시 일보상 공정은 2시간 인장  
나. 추진사항  
- 비계량은 생산성 적용이 인되고 있으나 2009년에 비계량 부분을 계량으로 정비 계획 중
- 현장 작업도중 긴급소요자재 현장구매 가능토록 개선**  
가. 현장작업 시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 지사로 예산지급  
나. 추진사항  
- 긴급자재 중 즉시성 물자(시멘트, 락카 등)는 현장에서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처리  
- 5원원 한도 내

- 연말/연초 예산문제로 현장 가복구 공사처리**  
가. 세부사항: 예산부족 및 예산 미반영으로 자재구입이 안되어 가복구·분복구 중 복구시 진행  
나. 추진사항  
- 2009년부터 연말에 공사 계획하여 연초에 즉시 예산반영 추진
- 여비지점 현실화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가. 세부사항: 실비정산제, 지급액 상향조정, 장기체제에 따른 감액 등의 규정 삭제  
나. 추진사항  
1) 실비정산제 포함 추가  
2) 출납비 상향조정  
- 숙박비: 상무대우(5만~6만), 2급(4.3만~5만), 3급 이하(3.5만~5만)  
- 알바: 1만원 - 1만2천원  
3) 장기체제에 따른 감액규정 삭제
- 초과근무시간급 지급대상 확대**  
가. 세부사항: 와이브로운영센터 및 사업지원센터 선로기술팀 현장근무자 적용 확대  
나. 추진사항: 와이브로운영센터·사업지원센터 현장근무자는 2009년 3월부터 복무직용, 4월 급여부터 초과근무시간급 지급

노동조합은 이 외의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사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 조합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